

# 생명이 길려면 준비도 길어야 한다

문중환/한국양육협회 홍보부장

「오랫동안 땅 위에 엎드려 있던 새가 한 번 날으면 높이 날는다. 사람도 이와 같이 힘을 기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 번 일어서면 힘차게 활약하게 된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울려고 조급히 서둘것이 아니다. 생명이 긴 일은 그만큼 준비도 길어야 한다. 쉬워 보이는 일도 해보면 어렵다.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넘어 가진다. 쉽다고 알볼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팔짱을 끼고 있을 것이 아니다. 쉬운 일도 신중히 하고 곤란한 일도 겁내지 말고 해 보아야 한다.」

채근담(菜根譚)에 나오는 내용이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이다.

양육분야에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감지되고 있는 분야중 두가지만을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농가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기도 하다.

먼저 사슴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

현재 사슴은 도축을 하는데 법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있다. 개(犬)와 같다고 보면 된다. 전국에 사슴을 잡아주는 전용도축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소나 돼지의 도축장에 위탁하여 사슴을 잡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런데 사슴고기를 원료로한 액기스(중탕)는 넘쳐나고 있다. 어디에서 사슴을 도축하여 액기스를 만들었겠는가. 대부분 농장에서 직접 도축하여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를 정부당국자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농가에서 사슴

을 잡는 것을 비위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슴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적용되면 일장 일단이 있다. 당장 농가에서 사슴을 잡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에 사슴전용 도축장이 생겨 위생적인 사슴고기를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도축된 사슴고기를 공급해 주는 유통인이 생겨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와 유사한 축종이 바로 염소다. 염소는 이미 축산물위생처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축종으로 도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자들의 입김이 세다. 지금부터라도 사슴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포함되면 돌출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냉철히 준비할 때다.

그리고 사슴의 분노처리가 농가의 새로운 골치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슴은 분노의 발생량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사슴사육농가가 늘어나면서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사슴을 기르는 농가들의 방심은 금물이다.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사슴사육 농가들은 이제부터 사슴분뇨처리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간이정화시설을 한다든가 제때에 사슴분뇨를 제거하여 사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당연히 빠져도 되는 축종임을 정부당국자에 주지시켜야 한다. 우리 사슴사육 농가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생명이 긴 산업- 바로 양육업을위하여 신중히, 겁내지 말고 착실히 준비해 나갈 때다.\*